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Praise	다 같 이
통성기도	Prayer	다 같 이
신앙고백	주기도문	다 같 이
찬 송	Hymn 28	다 같 이
기 도	Prayer	박선영 집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사무엘상17:38-50	인 도 자
설 교	세상과 대적하는 믿음	이진우 목사
찬송과봉헌	Hymn 397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기도 : 박종갑 장로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 일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수요성경공부	매수 오후7시(예정)
가정교회예배	각 가정교회별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

목 회 사역	이진우 목사
행 정 사역	박종갑 장로 남관희 집사
선 교 사역	서정길 장로 안찬호 성도
양 육 사역	Kaitlan Hronek
미디어 사역	윤지호 집사
친 교 사역	정순영 집사 이현미 집사
찬 양 사역	이오현 집사 서새롬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7년 9월 30일 제61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METHODIST CHURCH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CHURCH: 716 E 56TH ST. TACOMA WA 98404
PARSONAGE: 6584 DISCOVERY ST. E FIFE WA 98424
TEL (253)661-5436, 227-1775
HOMEPAGE: WWW.JAYOOCHURCH.ORG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 금주의 말씀요약 ◘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통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사랑이 충만하여 완전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하는 까닭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떠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몸이 죽음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한 후 세상을 떠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축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영원한 평안함을 얻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죽기 전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도 이 세상에서 구원의 삶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서도 세상을 떠날 수 있고,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과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죽기 전의 구원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거인 골리앗이 40일을 아침저녁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나타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욕보였지만 누구도 골리앗을 대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을 조롱하는 세상의 상징입니다. 세상은 골리앗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골리앗과 아무도 대적하여 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싸우려 하지 않습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산다는 것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골리앗만하고 우리는 작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마치 양을 이리에게로 보내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눅10:3]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골리앗이 두려워 세상이 두려워 아무도 싸우려 하지 않을 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양 같은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어떤 장수도 나서지 못하는 이리와 같은 골리앗과 대적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선 소년 다윗을 통해 성경은 골리앗으로 인해 벌벌 떠는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그리고 사울 왕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싸우지 않으면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막상 싸워보면 별 것 아닐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레 겁먹고 싸워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는 것입니다. 세상 식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 나 한 사람이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나 하나쯤 정직하게 산다고 세상이 바뀌어 지나. 그러나 여기에는 악한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싶어 하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계산과 비겁함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결과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의 교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이것은 곧 세상과 싸우기를 회피하는 우리의 비겁함이며 결과를 사람이 만들어 낸다고 착각하는 교만함입니다.

한 사람의 힘, 물론 이것으로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과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한 사람의 능력은 충분히 세상을 바꾸고도 남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삼상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리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다윗이 거인 골리앗에게 농락당하는 이스라엘을 구하여 냅니다.

우리는 비록 다윗처럼 작고 보잘 것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골리앗과 대적한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싸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기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2. **내일부터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5시 30분에 시작하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입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3. **다음주부터 가정교회별로 가정모임을 시작합니다. 가정모임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부흥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4. **친교식사후 가정교회 인도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5. **교인주소록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주소와 생년월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다음주 예배 후 사역보고 및 월례회의로 모이겠습니다.**
7. **10월 15일(월)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선교회 서북부 지방 교역자회의가 우리교회에서 개최됩니다.**

◇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1090.00	
감사헌금:	$320.00	
주일헌금:	$16.00	
특별헌금:	$0.00	**합 계: $1,426.00**

중보기도 제목

- 우리교회에 주신 오천 명을 먹이는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 장애우를 돕는 밀알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장애우들에게 풍성하게 하옵소서.
- 북한의 땅에도 복음이 증거 되게 하시사 복음을 통해 민족의 통일이 앞당겨 지게 하옵소서.
- 샤론의 집을 통해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한인여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 도산 경로 대학을 통해 노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